

화순군, 강소농 활동 합격점

올해까지 442명 선정·육성해 신바람 자율모임체 최우수상 수상도



화순군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강소농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난 10일 강소농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

1년 동안 강소농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자율모임체 회원들과 교육생들은 강소농 성과평가회에서 강소농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평가 결과, 신바람 강소농 자율모임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신바람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2014년 강소농 교육을 통해 결성된 모임으로 농장 홍보와 직거래 활동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양형순 신바람 자율모임체 회장은 “강소농 교육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프로그램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며 “강소농 교육에서 얻은 정보들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19

년까지 442명의 강소농을 선정해 농산물 홍보, 유통, 마케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강소 농가 애로사항 해결, 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신규 강소농 34명을 선정해 기존 강소농과 함께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후속교육, 농업회계, 농장정보 교육을 운영했다. 5개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육성하고 있다.

이번 성과평가회에 앞서 ‘화순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민승규 전남농촌진흥청장이 특강에 나섰다. 4차 산업시대에 도입할 AI를 농업에 접목해 미래의 화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제시해 14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강소농은 소규모 농가의 유형에 맞는 경영개선 목표를 설정해 부농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경영 역량강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화순의 강소농들이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마을’ LPG배관망 구축 완료

LPG 저장탱크·배관망 설치로 에너지 복지실현



고흥군이 가족의 섬 ‘우도마을’에 총 사업비 4억 5,000여만원을 들여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우도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은 2019년 전남도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시행하여 지난 8월에 착공한 뒤 4개월여 만에 준공했다.

이에 따라 우도마을 주민들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LPG배관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 겨울철 연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서는 도비와 군비 4억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대도시 도시가스 공급지역 수요자 부담금의 절반 이하 수준인 100만원 미만의 자부담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LPG협회에서 조성한 에너지희망충전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 계층은 50%의 자부담을 지원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LPG배관망 구축으로 주민들은 연20%이상 연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여주시, 내년 국비 4816억 확보...지역발전 동력 마련

국도 77호선 개설 사업비 등 현안 사업 대거 반영 폐플라스틱 자원화 등 신규사업 43건 포함

여주시가 민선 7기 최대 역점사업인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개설 사업비 200억 원 포함, 내년 도 정부예산 4816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 국비는 올해 예산 4871억 원보다 55억 원 감소한 규모다.

이는 화양~적금 연도연륙교 사업과 도서식수원개발 사업 등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올해로 마무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회가 확정된 내년 도 여주시 정부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 국가(도) 추진사업은 1282억 원(27%), 여주시 추진사업은 3534억 원(73%)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지역 SOC 분야 18건 1119억 원 ▲상하수도·환경 분야 19건 20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건 341억 원 ▲문화·체육·관광·교육 분야 9건 100억 원 ▲보건복지 분야 4건 49억 원 ▲재난재해·안전 분야 4건 72억 원 ▲경제·산단지원 분야 12건 61억 원 ▲교통·지역개발 8건 93억 원 ▲기초연금 등 일반국고 2702억 원 등이다.

특히 ▲노후 폐수관로·수도관 정비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권역별 재활용원 건립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원 건립 등 신규사업 43건이 포함돼 지역발전과 시민 정주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여주시는 올해 초부터 국화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국고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예산통으로 불렸던 권오봉 여수시장의 활약도 눈부셨다. 권

시장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국회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예결위원인 이용주, 서삼석,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승용 국회의장과 최도자, 정인화, 김학용, 김동철, 황주홍 국회의원 등을 수차례 찾아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여주시는 ▲여주시립박물관 건립 승인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개설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민선 7기 3년 차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동력을 마련했다”면서 “지난달 26일 2021년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는 등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도현 기자

‘2020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새로운 상징물 확정



영광군은 2020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상징물 E.I (Event-Identity)를 새롭게 선보이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월에 디자인 개발에 착수해 중간보고회 개최, 전 직원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상징물을 최종 확정했으며 확정된 상징물을 대내외 각종 홍보물에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징물의 핵심인 삼발마르는 영광의 이모빌리티로 지구에 친환경적인 삶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아 블루이코노미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친환경을 의미하는 녹색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또한 마스코트는 전기플러그를 응용하여 머리를 형상화하고 기

에 e를 새겨 이모빌리티를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 승인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 엑스포의 이미지 표현이 중요하다”며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여 e-모빌리티 시티, 영광으로서의 도시브랜드 확립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3회째 개최되는 2020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문덕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전개

보성군 문덕면은 지난 9일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나눔 행사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연탄 나눔운동 보성지

부가 주관하고, 문덕면희망드림협의회와 각 기관단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67가구에 1,800개의 연탄을 배달했다.

문덕면 소명영 면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문덕면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보성=인규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지원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행안 안내